

마음과 과학과 문화

- 과학적 심리학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하여

최 호 영

주제분류 이론심리학, 과학철학

주요어 심리학의 역사, 과학적 심리학, 심리학적 상식, 규범, 문화

요약문

심리학이 분과학문으로 성립한 지 약 130년이 지난 오늘날 심리학계에는 심리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주요한 두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하여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심리학의 연구대상을 점점 더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게 된 발전의 역사로 보는 주류의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이런 심리학 주류가 선호하는 자연과학적, 실험적 연구방법이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지닌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성찰에서 출발하는 비주류의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심리학의 역사는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사이의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본인은 이런 비주류의 관점에서 오늘날 심리학이 당면하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 두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는 이른바 ‘심리학적 상식’에 해당하는 것들, 다시 말해 ‘구성 단어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참인 심리학적 진술들’은 경험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런 어려움을 무시하고 심리학적 상식을 경험과학적으로 다루려 할 때는 사이비경험적 연구가 될 위험이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둘째로 인간의 자기이해와 일상적 실천 중에는 규범의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 적지 않은데 기존의 심리학자들이 이런 규범현상을 다루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끝으로 이런 어려움들은 기존의 과학적 심리학에 대한 방법론적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이런 성찰은 ‘과학에 대한 문화의 우선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시도한다.

이 글에서는 약 130년에 이르는 심리학의 역사를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이해의 발전과정이라는 관점에서 간단히 되돌아보면서 이런 과학적 심리학의 노력이 여전히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방법론적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과학적 심리학의 이런 방법론적 문제들의 의미를 과학과 문화라는 두 영역의 긴장관계 속에서 성찰해보고자 한다.

1. 심리학의 역사를 바라보는 두 관점

“심리학의 과거는 길지만 심리학의 역사는 짧다.”(Die Psychologie hat eine lange Vergangenheit, doch nur eine kurze Geschichte.) 심리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이 말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에 기억에 대한 최초의 실험적 연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에빙하우스 Ebbinghaus(2007[1908])가 한 말이다. 이 말은 한편으로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인류의 지적 탐구가 심리학이 생기기 훨씬 이전부터 있어 왔음을 뜻하고(“심리학의 과거는 길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대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이 독립학문으로 생겨난 지는 얼마 되지 않음을 뜻한다(“심리학의 역사는 짧다.”). 에빙하우스가 이 말을 한 시기는 심리학이 유럽과 미국에서 막 생겨나기 시작하던 때이므로 당시 상황에서 이 말은 아주 당연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설득력을 가진다. 왜냐하면 분트Wundt가 1879년에 라이프치히대학에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해 심리학의 제도적 틀을 잡아가기 시작한 뒤 이제 13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인간의 마음에 대한 지적 탐구의 역사가 기원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점을 고려할 때 130년의 시간은 여전히 그리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에빙하우스의 이 말에서 이런 일차적 의미를 넘어 심리학자들의 자기이해와 관련해 또 다른 의미를 읽어낼 수 있다. 곧 이 말에서 우리는 적어도 심리학 초창기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의 정체성을 연구 대상의 차별성이 아니라 연구 방법의 차별성에서 구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물리학, 생물학, 심리학 등 개별학문들의 차별성은 일차적으로 물리현상, 생물현상, 심리현상 등 각 학문이 다루는 대상의 차이에 기초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각 개별학문마다 독특한 연구 방법이 있다면 그런 연구 방법의 독특함을 궁극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그 학문이 다루는 연구 대상의 특성일 것이다. 그러나 19세기에 심리학이 막 생겨나던 시점에서 심리학의 중심 연구대상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에빙하우스의 말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철학자들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의 진지한 탐구대상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이 철학 등에서 독립하기 위한 정당근거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연구대상의 차별성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는) 연구방법의 차별성에서 구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철학자들의 주로 사변적인 연구방법과 구별되는 심리학의 독특한 연구방법이란 다름 아니라 바로 당시 인상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던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자연과학에서 가져온 계량적이고 실험적인 연구방법이었다.

심리학 초창기에 심리학자들의 자기이해를 규정했던 이런 방법중심의 사고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심리학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이들은 약 130년의 나이를 먹은 심리학의 역사를 심리학이 사변적인 철학에서 독립해 나와 과학적 연구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해 가면서 그에 발맞춰 인간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축적해온 역사로 이해한다. 이들은 20세기 전반에 특히 미국 심리학계를 지배했던 행동주의가 인간의 마음을 심리학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행동만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것도

심리학을 과학으로 정립하기 위한 방법론적 고민의 산물로 이해하며, 1970년대 이후 심리학의 중심 패러다임이 행동주의에서 인지주의로 대체된 것도 더 적합한 연구방법이 생겨남에 따라 원래 심리학의 연구대상이었던 마음이 다시 심리학 연구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된 발전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심리학의 역사를 마음에 대한 과학적 접근과 이해가 꾸준히 발전해온 역사로 보는 것이 오늘날 심리학자들이 자기 학문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관점이라면, 또 다른 한편에서는 비록 소수이지만 심리학의 역사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흐름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심리학의 연구방법보다 연구대상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심리학 주류의 자연과학적 연구방법이 심리학의 연구대상인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기에 부적합하며 이것들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다. 이들이 보기에 심리학의 역사는 연구 대상과 방법의 끊임없는 충돌과 갈등의 역사였다. 이들이 보기에 심리학의 역사는 에빙하우스의 말처럼 심리학의 오랜 과거를 통해 형성된 인간의 자기이해가 자연과학에서 빌려온 방법에 의해 끊임없이 도전받고 왜곡되어온 역사였다.¹⁾

자연과학적 방법보다는 인간의 특성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인문학적 또는 사회과학적 방법을 선호하는 이런 관점은 흔히 심리학의 창시자로 간주되는 분트 자신에게서도 발견된다. 분트는 당시 새롭게 발전한 정신물리학과 통제된 내성법 등을 사용한 실험적 방법으로 인간 정신현상의 기초과정을 연구하는 실험심리학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지만 다

1) 이런 관점에서 심리학 역사를 고찰한 연구로는 예컨대 Lueck 등(1984) 참조. 그 밖에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개별학문으로서 심리학의 정체성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른바 ‘위기 담론’이 거의 전통처럼 이어져 왔는데 (무엇보다도 Bühler 1927, Wygostki 1985[1927], Maiers 1988 참조) 이런 위기 담론의 배경을 이루는 것도 심리학의 연구대상과 연구방법의 긴장관계였다고 볼 수 있다.

른 한편으로는 언어나 민족정신과 같은 고차원의 정신현상은 실험적으로 연구할 수 없고 문화역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래서 오늘날의 문화심리학과 비슷한 민속심리학Völkerpsychologie을 구상하고 이에 관한 방대한 연구결과(무엇보다도 Wundt 1900-1920)를 내놓은 사람이기도 하다. 인간 이해에 대한 자연과학적 접근과 인문사회과학적 접근의 이러한 이중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또 한 사람은 분트의 동시대인이자 정신물리학의 창시자인 페히너Fechner다. 그가 1860년에 발표한 저서 “정신물리학 기초Elemente der Psychophysik”는 흔히 최초의 실험심리학 저서로 간주되는데, 그가 이 책을 전후해 발표한 다른 저서들의 제목을 한번 훑어보면 도대체 그의 정신세계가 어떠한 것인지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페히너가 발표한 책 제목들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천사의 비교해부학Vergleichende Anatomie der Engel”(1825)
- “죽음 뒤의 삶에 관한 작은 책Das Büchlein vom Leben nach dem Tode”(1836)
- “나나 또는 식물의 정신적 삶에 관하여Nanna oder über das Seelenleben der Pflanzen”(1848)
- “젠드 에베스타 또는 하늘과 저승의 사물에 관하여Zend-Avesta oder über die Dinge des Himmels und des Jenseits”(1851)
- “물리학적·철학적 원자론Ueber die physikalische und philosophische Atomenlehre”(1853)
- “정신물리학 기초”(1860)
- “미학 입문Vorschule der Aesthetik”(1876)
- “낮 풍경과 밤 풍경Die Tagesansicht gegenüber der Nachtansicht”(1879)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책 제목들을 여기서 모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며, 중요한 한 가지만 언급하자면 “정신물리학 기초” 이후에 쓴 “낮 풍경과 밤 풍경”이란 책에서 페히너가 말하는 ‘밤 풍경’이란 물리학적·수학적 언어로 기술된 세계를 가리키며 이 책에서 페히너는 이런 세계와 대립되는 영혼이 깃든 세계, 곧 ‘낮 풍경’을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페히너는 철저하게 물질의 세계와 정신의 세계를 구별하고 있었으며 정신의 세계가 물질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적 방법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다고 본 사람이다. 그의 유명한 “정신물리학 기초”도 결코 정신현상을 물리현상으로 환원하려는 시도가 아니었으며 그저 두 현상 사이에 다리를 놓고자 하는 그의 열정의 한 표현이었을 뿐이다. 이처럼 페히너의 관심은 자연과학적 방법을 적극 받아들였던 동시대의 심리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기에 고전적 심리학사의 저자 보링Boring(1963)은 페히너가 ‘본의 아니게’ 정신물리학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다시 심리학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인문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심리학 내부에서 분트의 민속심리학 이래 끊임없이 존재했는데, 예를 들자면 인간의 체험을 전체로서 다룬 게슈탈트Gestalt심리학, 실존주의 사상의 영향 아래 인간의 자아실현을 연구 초점에 둔 인본주의 심리학, 현상학적 전통을 심리학에 접목시킨 현상학적 심리학, 사적 유물론의 관점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한 비판심리학Kritische Psychologie, 개인 발달의 문화적 차원을 강조한 문화역사학과cultural-historical school, 심리학의 남성 중심적 편향을 바로잡으려는 여성주의 심리학, 그리고 오늘날 심리학의 중심 분야로 자리 잡은 인지심리학의 개인주의적 편향을 비판하면서 인간 마음의 의미론적·문화적 차원을 강조하는 문화심리학 또는 담론심리학

등이 있다. 본인은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이자 문화적 존재라고 보기 때문에 인간 마음과 행동의 생물학적 측면을 밝히려는 자연과학적 접근이 그 자체로 충분히 의미 있으며 앞으로도 훌륭한 연구결과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간 마음과 행동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인 문화적 측면이 130년 가까운 심리학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불충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이다.

오늘날 심리학, 뇌과학, 인공지능 등 마음과 관련된 여러 학문분야가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여전히 인간의 마음이 이해하기 까다로운 수수께끼 같은 대상으로 우리에게 느껴지는 까닭은 본인이 보기에 크게 두 이유가 있는 듯하다. 그 한 이유는 마음의 생물학적 기초라 할 뇌에 대한 이해가 아직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과거에 뇌에 대한 연구가 주로 동물실험이나 시신해부, 임상관찰 등에 의존해 온 반면에 최근의 여러 가지 뇌 영상술의 발달은 인간이나 다른 동물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앞으로 이런 관찰기법을 바탕으로 정신활동의 신경생물학적 기초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이해하기 까다롭게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마음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아직도 충분히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정신작용의 신경대응물을 찾는 이른바 ‘쉬운 문제’와 이런 신경생물학적 과정을 바탕으로 왜 우리가 평소 느끼는 것과 같은 질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이 생기는가 하는 이른바 의식의 ‘어려운 문제’를 구별했던 심리철학자 찰머스Chalmers(1995)의 논의나 정신의 지향성Intentionality을 환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많은 논쟁 등도 마음에 대한 개념적 이해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단원에서는 이런 개념적인 문제들과 관련해 심리학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2. 과학적 심리학과 인간의 자기이해

1) 심리학적 상식과 사이비경험적pseudo-empirical 연구

심리학의 연구대상에 적합한 연구방법이 무엇인가를 둘러싼 논쟁은 종종 연구의 대상이 먼저인가 아니면 방법이 먼저인가 하는 형태로 전개되곤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 방법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흔히 주장하기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으로 우선 대상을 어느 정도 연구하고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적용한 방법이 대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상에 대한 특정한 이해를 전제한 뒤 그것에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은 과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상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리학적 대상에 대해 가지고 있는 특정한 이해가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장구한 세월 동안 인간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어 온 것임을 지적한다. 이렇게 인간의 삶 속에서 형성되고 또 삶 자체의 일부이기도 한 인간의 자기이해는 과학적 심리학과 이중적인 관계에 있다. 한편으로 인간의 선과학적인 자기이해는 그것이 인간을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인간을 설명하고자 하는 과학적 심리학과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선과학적 자기이해는 우리의 일상적 삶을 구성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는 점에서 인간의 삶의 현상들을 설명해야 하는 과학적 심리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한 에빙하우스의 표현을 다시 한 번 빌리자면 심리학의 오랜 과거는 심리학이 넘어서야 할 일종의 경쟁이론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이 설명해야 할 마음의 현상,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중적 성격을 지니는 인간의 선과학적 자기이해 가운데에서 특히 핵심이 되는 부분을 스웨덴의 심리학자 스메즈룬트Smedslund(1995)

는 ‘심리학적 상식psychological common sense’이라고 부른다. 그의 기술적인 용어로 다시 정의하자면 심리학적 상식이란 “그것을 구성하는 단어들의 의미를 바탕으로 참인 모든 심리학적 진술들”(같은 책, 198쪽)을 가리킨다. 스메즈룬트는 다음과 같은 명제를 심리학적 상식의 예로 든다.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한 정도만큼 놀란다.”

만약 우리가 이 명제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문장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의 참 또는 거짓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100명의 대학생들에게 일련의 명제들을 제시하고 각 명제가 참일 가능성을 추측해 0.00에서 1.00까지의 척도에 따라 기록하도록 한다. 이 1차 과제가 끝나면 각 명제가 실제로 참인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알려준 뒤 학생들이 각 명제의 진리값을 알고 나서 얼마나 놀랍게 느꼈는지를 1에서 10까지의 척도에 따라 스스로 평가하게 한다. 이 조사의 결과는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이다. 1차 과제에서 참일 가능성이 0.00이라고, 곧 전혀 없다고 추측했던 명제가 참으로 밝혀졌을 때 학생들은 가장 많이 놀랐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그리고 1차 과제에서 참일 가능성이 1.00이라고, 곧 아주 크다고 추측했던 명제가 실제로 참으로 밝혀졌을 때 학생들은 가장 적게 놀랐다고 평가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놀라움 정도는 학생들이 예상치 못했던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며, 이런 조사 결과는 언뜻 보기에 연구대상으로 삼았던 심리학적 상식을 경험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은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한 정도만큼 놀란다.”는 명제는 그럴 듯해 보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그럴 듯해 보여서 그 반대의 경우를 상상하기가 어렵다. “자기가

예상한 것을 경험해서 놀랐다.”라는 문장이 의미 있게 이해되는가? 또는 “자기가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해서 놀라지 않았다.”라는 문장이 의미 있게 이해되는가? 우리는 놀라움이라는 감정이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했을 때 생기는 반응이라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상식에 어긋나는 문장을 보게 되면 그 문장을 의미 있게 재해석하기 위해서 보조 가정을 거의 자동적으로 추가하게 된다. 예컨대 “자기가 예상한 것을 경험해서 놀랐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한 사람이 평소에 자기의 예상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이 경우에 자신의 예상이 예상외로 들어맞아서 놀랐다는 얘기로 재해석하기 쉽다. 또 “자기가 예상치 못한 것을 경험해서 놀라지 않았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는 예컨대 예언적중률이 형편없는 점쟁이가 이번에도 예상대로 자기 예언이 빗나간 것을 확인하고는 초연해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 상식의 반대경우를 상상하기조차 어렵기 때문에 만약 앞의 가상적인 예에서 경험조사의 결과가 상식과 반대되게 나왔다면, 다시 말해 학생들의 놀라움 정도가 학생들의 예상 정도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이 조사결과를 상식의 반증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도대체 조사 절차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통제되지 않은 어떤 제삼 변인이 개입했는지 등을 밝혀내려 할 것이다.

이런 예를 통해서 스페르룬트가 주장하는 바는 심리학적 상식이 분석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또는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한 규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명제가 경험적으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수 있으려면 그 명제의 반대 명제가 의미 있게 성립해야 하나 심리학적 상식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처럼 의미론적으로 참이기 때문에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명제들을 마치 경험적 가설인 것처럼 다루고

연구하는 것을 스메즈룬트는 사이비경험적인 연구라고 부르는데, 그는 심리학에서 설득력 있어 보이는 많은 연구들이 이런 종류의 사이비경험적 연구들이라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떤 행동을 보상해주면 그 행동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행동 강화의 법칙,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인 자기효능감이 강할수록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자기효능감 이론, 무기력을 학습하면 쉽게 좌절한다는 학습된 무기력 이론 등이 그런 것들이다(Smedslund 1978, 1984 참조).

본인은 스메즈룬트의 주장처럼 그렇게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사이비경험적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이 자리에서 판단을 보류하고자 한다. 다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을 포함해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을 해석하고 설명할 때 이렇게 의미론적으로 참인, 따라서 경험적 검증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심리학적 상식들이 많이 있다는 스메즈룬트의 주장은 심리학적 연구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의미론적으로 참인 심리학적 상식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기타 사실 또는 주장을 대비시키는 스메즈룬트의 논의는 칸트 철학 이후 철학계에서 많이 통용되었던 (주어개념이 술어개념을 내포하는, 따라서 경험적 관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석판단과 (주어개념이 술어개념을 내포하지 않기에 경험적 관찰을 필요로 하는) 종합판단의 구별을 연상시킨다. 예컨대 스메즈룬트는 심리학적 상식을 그 특성에 맞게 연구하는 ‘형식적이고 비경험적인’ 학문분야로서 이른바 심리논리학Psychologic을 제안하면서 이것을 일련의 공리와 정의 및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 명제들로 구성하려고 시도하는데²⁾ 이러한 시도는 분석판단과 종합판단의 구별에 기초한 칸트의 선형철학체계와 근친성을 보여준다 하겠다. 그러나 스메즈룬트의 ‘의미론적으로 참’이라는 개념을 칸트의 의미에서

2) Smedslund 1995, 203쪽 이하 참조.

‘분석적으로 참’이라는 의미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예컨대 비트겐슈타인의 의미에서 화용론pragmatics적으로 (어쩌면 확대) 해석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어 보인다. 곧 비트겐슈타인(1953)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심리적 용어들이 개인 내부의 어떤 정신적 실체 또는 상태를 가리킨다기보다 그런 용어들이 적절하게 사용되는 행동맥락에서 비로소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언어사용의 규범에 해당하는 측면을 심리학자들이 개인 내부에 존재한다고 가정된 경험적 실체로 오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스페르츨트의 ‘심리학적 상식’은 역사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되고 유지되는 언어사용의 규범의 일부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런 규범에 대한 연구는 기존 ‘주류’ 심리학의 인과론적 접근과 구별되지만 그렇다고 (스페르츨트가 주장하듯이) ‘형식적이고 비경험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담론심리학자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화용론적, 다시 말해 언어사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³⁾

스페르츨트의 ‘심리논리학’적 접근과 담론심리학자들의 화용론적 접근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과학적 심리학이 인간의 삶과 그 속에 녹아있는 인간의 마음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존의 실증주의적 접근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 규범과 사실

규범과 사실의 관계는 앞서 논의한 심리학적 상식의 문제와도 관련되지만 그것과 다른 면도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논제로 다루고자 한다. 이

3) 이런 방향의 연구에 대한 한 가지 예만 들자면 Harré(2002)를 들 수 있다. 여기서 Harré는 (인지심리학자들을 포함한) 인지과학자들의 인과론적 연구들을 화용론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듯이 사회적 현실은 자연적 현실과 달리 중요한 의미에서 규범적 성격을 띤다. 우선 규범의 가장 대표적인 예의 하나라고 할 법률이 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자연 질서를 관장한다고 가정된 ‘자연법칙natural laws’이라는 말도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부여받은 ‘법률laws’이란 용어에서부터 따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자연법칙과 규범관계를 기술하는 사회 법률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자연법칙의 경우에 어떤 법칙에 반하는 사실의 존재는 해당 법칙의 반응을 초래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법칙의 경험적 지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그러나 사회 법률의 경우에 어떤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당 법률의 반응을 초래하거나 그 법률의 현실성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위반 행위에 뒤따르는 처벌은 해당 법률의 현실성을 확인하고 재생산하는 효과를 낳는다. 물론 법률의 경우에도 대다수 사회구성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도 뒤따르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에서 그런 법률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미에서 비현실적인, 행위적 지지가 빈약한 법률은 경험적 지지가 빈약한 자연법칙처럼 단순히 폐기 또는 수정될 운명에만 처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는 처벌, 보상,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해 법률의 행위적 지지를 높이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차이는 철학자 쉘Searle(1998, 100쪽 이하) 등이 구별한 지향적 상태의 두 유형으로 잘 표현되는 듯하다. 쉘은 인간의 지향적 상태와 그것이 가리키는 실재 세계가 어떤 방식으로 상호 접근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일치의 방향direction of fit이 있다고 주장한다. 곧 신념, 지각, 가정, 환상 따위는 마음이 세계에 일치하려는 방향성(a mind-to-world direction of fit)을 지니는 반면 의도, 소망 따위는 세계를 마음에 일치시키려는 방향성(a world-to-mind direction of fit)을 지닌다고 하였다. 이 용어를 빌리자면 자연법칙은 그것이 기술하는 세계에 법칙이 일치해야 하는 방향성을 지니며 따라서 법칙과 일치하는 않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법칙인 것이다. 반면

에 사회 법률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 현실을 법률에 일치시키려는 방향성을 지니며 따라서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폐기 또는 수정되어야 할 것은 법률이 아니라 법률에 불일치하는 행위, 나아가 그런 사회 현실 자체인 것이다.⁴⁾

이렇게 사실과 구별되는 규범적 성격은 명시적 법률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사회적 제도와 관습, 개인 사이의 크고 작은 약속, 심지어 개인 혼자 내리는 결심과 계획 등에서도 나타난다. 그밖에 사실적 특성이 아니라 기능적 관점에서 정의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물들도 사실관계로 환원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규범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예컨대 ‘교실’이라는 개념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지칭한 방에서 학생들은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떠들기도 하고 서로 장난치거나 심지어 싸우기까지 한다. 그러나 이렇게 공부 이외의 행위가 교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교실이 교실로서 반증되었다 또는 부정되었다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기껏해야 해당 교실이 원래 목적에 덜 부합하게,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할 것이며, 교실이 좀 더 교실답게 이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실이라는 사회적 장소에 구현된 우리의 지향성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현실이 교실이라는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실에 맞게 그곳을 (예컨대 ‘놀이터’)로 재정의하기보다는 교실이라는 개념에 맞게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한 규범과 동일한 일치의 방향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일탈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에 못지않게 많은 정도로 사회적·개인적 규범에 맞는 행동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규범적 행동을 사실적으로 설명하려 할 때 특이한 개념적 문제가 생

4) 본인은 여기서 규범과 사실의 특징적 차이가 쉘의 지향성 분석과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쉘이 지향성 분석과 관련해 사용한 (그리고 그 이전에 오스틴Austin과 안스콤브Anscombe가 화용론 분석에서 사용한)(Searle 1998, 101쪽 참조) ‘두 유형의 일치 방향’이라는 개념이 본인의 논의를 분명히 하는 데 좋은 분석도구라고 생각할 뿐이다.

기는 듯하다. 예컨대 3명의 초등학생에게 “ $37 + 37$ 은 얼마인가?”라는 산술과제를 주어 학생들이 각각 다음과 같이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치자.

$$\text{학생 A: } 37 + 37 = 3737$$

$$\text{학생 B: } 37 + 37 = 0$$

$$\text{학생 C: } 37 + 37 = 74$$

쉽게 알 수 있듯이 이 예에서 학생 A와 B는 오답을 썼고 학생 C만 정답을 썼다. 이 상황에서 관찰자는 학생들이 각각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시도해볼 수 있다. 학생 A의 경우는 아마도 덧셈 개념의 학습이 불완전해서 덧셈을 하는 대신에 두 항목의 숫자를 그냥 나란히 병치한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겠다. 그리고 학생 B의 경우는 아마도 덧셈을 뺄셈으로 잘못 지각해서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이 두 경우에 이와 같은 추측이 실제로 맞는지 틀리는지 알려면 당연히 학생들에게 추가 질문 등을 통해 전후사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이런 추측은 의미 있는 가능한 설명인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학생 C의 경우는 어떠한가? 학생 C는 왜 정답인 74를 썼는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면서 “그거야 당연히 그게 정답이니까 썼지.”라는 식으로 답할 것이다. 여기서 ‘당연히’라는 표현이 시사하듯이 이런 설명은 별다른 추가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 학생 모두 과제를 풀면서 정답을 쓰려고 노력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학생 모두 나름대로 정답을 쓰려고 노력했지만 학생 A와 B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오답을 썼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생 C는 무슨 이유 때문에 정답을 썼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정답을 썼는가?”라는 질문은 또 다시 이상하게 들릴 것이다. 그리고 굳이 이 질문에 답한다면 또 다시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을 썼다.”라는 식의 별 의미 없는 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질문을 약간 변형해서 “학생 C가 정답을 쓰게 된 가능조건은 무

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의미 있는 질문이 되는 듯하다. 이 경우 우리는 예컨대 “학생 C는 사전에 덧셈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습득했고 과제상황에서 덧셈 지식을 제대로 응용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주의를 집중했기 때문에 정답을 쓸 수 있었다.”는 식으로 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충분한 지식과 충분한 주의집중이 정답을 쓴 행위를 완전하게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충분한 지식과 주의가 갖추어져 있어도 정답을 쓰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정답을 쓰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인지심리학에서 인간의 추리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제로 수행된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자. 피험자들은 다음과 같은 삼단논법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추론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김현택 등 2003, 244쪽에서 인용).

모든 사람은 도덕적이다.
히틀러는 사람이다.
고로 히틀러는 도덕적이다.

이 논법의 특징은 형식논리적으로는 타당하나 논법의 결론인 “히틀러는 도덕적이다.”라는 명제가 (또 엄밀하게는 “모든 사람은 도덕적이다.”라는 전제도) 사람들의 평소 신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논법을 접하면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논법을 접했을 때보다 옳게 판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또는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 연구자들은 신념편향효과 belief-bias effect라 부른다.

물론 이 연구 자체는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며 비슷한 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경험적으로 검증된 현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그렇다면 이른바 ‘정상적인’ 논법을 사람들이 제대로 판단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위와 같은 삼단논법을 피험자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옳게 판단할 경우에 이것은 심리적으로 무슨 효과라고 부를 것인가? 논리학 학습 효과인가? 이 경우 굳이 심리학적인 설명을 하자면 그저 피험자들이 삼단논법을 충분히 학습했고 또 이 과제를 제대로 풀 만큼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으며 게다가 제대로 풀려고 하는 충분히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도일 것이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피험자들이 논리학을 제대로 학습했다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처럼 규범 또는 의도에 일치하게 수행된 행동의 경우에는 (행위자의 능력 같은) 행위의 가능조건과 행위자의 의도 또는 해당 규범을 언급하는 설명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경험과학자들이 꺼리는 목적론적 설명에 가까워 보일 뿐만 아니라 어차피 별다른 추가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어떤 행위자가 규범 또는 의도에 맞게 행동했다면 당연히 그런 행동에 필요한 능력과 또 그런 행동을 하려는 의도를 또는 적어도 규범에 의해 강요된 의도라도 지녔다고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범 또는 의도에 일치하는 행동은 흔히 별도의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굳이 설명을 시도할 경우 목적론적 설명에 가깝기 때문에 경험적 연구자들의 연구 초점은 규범이나 의도에 일치하는 행동이 아니라 일치하지 않는 행동들에 맞춰지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피험자들의 과제수행에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해 또는 오류를 유발하기 위해 온갖 방법으로 실험조건을 조작한다. 그 결과 특히 사회심리학 교재들을 보면 온갖 판단 오류와 각종 인지적 편향들에 대한 연구들로 가득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오류에 대한 연구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류는 이른바 정상행동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준다. 우리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오류를 범하기 쉬운가에 대한 지식은 우리의 규범적 또는 의도적 행동이 가능하기 위한 현실적 조건에 대한 이해를 넓혀준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규범적 또는 의도적 행위들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 엄밀한 현실임에도 이런 부분을 과학적 심리학의 언어로 제대로 소화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기존의 과학적 심리학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규범적 관계를 사실적 또는 인과적 관계로 재기술함으로써 고의든 고의가 아닌든 결과적으로 규범적 관계를 부정하는 효과를 낳는 예는 심리학 이외에도 예컨대 지식사회학의 현대판인 과학사회학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식사회학의 창시자 만하임Mannheim(1982[1929])은 마르크스의 이데올로기 비판을 일반화해서 허위의식뿐만 아니라 각종 지식체계와 일상적 사고에 대해서도 그것들의 이른바 존재구속성을 밝혀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만하임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학과 자연과학은 이러한 지식사회학적 고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하지만 지식사회학의 계승자인 오늘날의 과학사회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의 연구 성과들을 본격적인 지식사회학적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들은 과학적 지식을 포함한 모든 지식이 행위자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 사회현상이라고 간주하며 지식이 규범적 의미에서 참이건 거짓이건, 합리적이건 비합리적이건 상관없이 모두 사회학적 수준에서 인과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본다(예컨대 Bloor 1976). 그러나 이런 설명들에서는 결국 우리가 규범적 의미에서 진리로 간주하는 것이든 허위로 간주하는 것이든 모두 사실적인 사회적 협상과 합의의 산물로 나타날 뿐이다. 그리고 이런 설명들에서는 왜 어떤 것은 사람들이 진리로 합의하고 왜 어떤 것은 사람들이 허위로 합의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규범적인 성격의 것이라는 이유로 제시되지 않는다. 이런 설명들에서는 로켓이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도 관련 과학자들이 그것을 성공으로 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며 의사가 환자의 병을 고친 것도 그것을 치료된 것으로 보

자고 합의했기 때문일 뿐이다. 본인이 보기에 이런 설명방식은 과학이라는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제도라는 측면은 분명하게 보여주었지만 과학이라는 제도가 다른 제도들과 구별되는 특수성은 무엇인지, 진리라는 규범이 과학이라는 제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이런 과학사회학적 연구들은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모든 과학적 성과들이 그저 사회적 협상과 합의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인상을 심어준다. 그리고 이런 인상은 단지 독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사회학자 자신들도 이런 인상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그래서 과학에 대해 이렇게 철저하게 자연주의적인 접근이 합리주의 등에 대한 과잉반응이었다는 자성의 소리가 있었으며(Barnes 1994) 나아가 많은 과학사회학자들은 이제 “이 미친 학과를 버리고 ... 행복한 중도로 돌아가자.”(Latour 1992, 272쪽)는 의견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사실적 설명에 충실하려던 과학사회학이 과학의 규범적 측면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심리학이 자신의 인과적 설명체계 때문에 인간의 규범적 또는 의도적 행위의 측면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좋은 설명이란 현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3. 맺음말: 과학과 문화 사이에서 마음의 위치는?

이상 두 가지 논의에서는 우리의 일상적 자기이해가 과학적 심리학의 정당한 연구 대상임에도 기존 심리학의 방법론적 틀 안에서 어찌서 다루어지기 어려운가 하는 점을 나름대로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 단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과학과 문화라는 두 영역의 긴장관계 속에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다시 말

해 이런 일상적 자기이해가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문화와 인과적 설명을 선호하는 과학적 심리학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개인적인 소견을 밝히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자연을 대상으로 한 인과적 설명은 자연현상에 대한 인간의 예측력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자연을 인간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자연을 지배하려는 태도는 인간이 자연과 예컨대 대화하려는 욕구를 가지지 않는 한 적어도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물론 오늘날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규모 개입으로 인해 초래된 각종 환경문제는 기존의 자연과학적 실천에도 성찰적 태도가 점점 더 필요해짐을 의미하는 듯하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인과적 설명은 인간에 대한 인간의 예측력과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인간을 인간의 의지에 복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필요성과 욕구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그저 예측과 통제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약속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등의 욕구와 필요성도 가지고 있다. 본인이 보기에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그저 인과적으로만 설명하려는 과학적 심리학은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려는 우리의 문화적 욕구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오히려 방해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집단을 대상으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의 관계를 살피는 실험적이고 통계적인 연구가 대중의 행동을 예측하고 통제하려는 관심에는 기여하지만 개인들이 일상 속에서 다른 개인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데 과연 어떤 통찰과 이해를 보태줄 수 있을지 본인은 상당히 의문스럽다. 과학적 심리학의 대표적 성과물 중의 하나인 각종 표준화된 심리측정 도구들이 사회의 여러 제도 속에서 개인들을 선별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것들이 나 자신이나 내 주변의 개인들을 이해하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매우 의문스럽다.

설령 인간의 일상적 자기이해가 과학적 언어로 설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라도 그래서 객관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이러한 자기이해를 버릴 것인지 아니면 간직하고 더욱 가꿀 것인지를 결정하는 심급은 궁극적으로 과학적 객관성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본인이 보기에 문화는 과학의 연구대상이자 과학의 궁극적인 주체이기 때문이다. 본인이 보기에 문화는 과학의 성과를 소화하고 향유할 주체이지 만약에 거꾸로 문화가 과학에 포섭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마음이 구현된 총체가 문화라고 볼 때 마음은 과학의 대상이자 동시에 문화를 통해 과학을 이끄는 주체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는, 그리고 문화로 표현된 마음은 과학에 대해 규범적 심급으로 작용할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규범적 작용은 첫째로 인간의 마음과 문화에 더욱 걸맞은 방향으로 과학의 개념과 실천을 확장하는 노력으로 구체화되어야 하고, 둘째로 (그런 과학의 확장이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과학 개념의 틀을 너무 벗어나 더 이상 과학이라 부르기 어려울 때는) 과학의 범위와 의미를 제한하는 역할로 나타나야 하지 않을까? 심리학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대한 과학적 이해의 발전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이라는) 심리학의 연구대상이 (자연과학을 모범으로 삼는) 심리학의 연구방법에 의해 끊임없이 굴절되고 왜곡되어온 역사라고 할 때, 심리학 연구대상의 회복은 과학에 대한 문화의 우선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을 맺는 본인의 잠정적인 결론이다.

(고려대학교)

5) 덧붙이자면, 문화가 또는 문화로 표현된 마음이 과학에 대해 규범적 심급으로 작용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주장은 특정 문화가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가)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이 아니다. 특정 문화는 당연히 여러 관점에서 (예컨대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또는 어떤 자연과학적, 철학적, 우주론적 등등의 관점에서) 성찰과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른바 과학적 객관성에 대한 (내재적 비판과 아울러) 외재적 비판이 가능하며, 그런 외재적 비판의 가장 대표적인 심급은 (과학의 성과가 인간의 삶에 의미 있게 수렴되어야 하며 그런 삶의 총체를 문화라고 부를 수 있다는 가정할 때) 우리가 살고 있는 (특정) 문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현택 등 (2003), 『현대 심리학 이해』, 학지사.
- Barnes, B. (1994), “How not to do the sociology of knowledge”, in: A. Megill (Ed.), *Rethinking objectivity*, Durham: Duke Univ. Press, 21-35쪽.
- Bloor, D. (1976), *Knowledge and Social Imagery*,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Boring, E. G. (1963), “Fechner: Inadvertent founder of psychophysics”, in: R. I. Watson & D. T. Campbell (Eds.), *History, psychology, and science*, New York: John Wiley, 126-131쪽.
- Bühler, Karl (1927), *Die Krise der Psychologie*, Jena.
- Chalmers, David (1995), “Facing Up to the Problem of Consciousness”, in: *Journal of Consciousness Studies* 2(3), 200-219쪽.
- Ebbinghaus, Hermann (2007[1908]), *Abriss der Psychologie*, Verlag Dr. Müller.
- Harré, Rom (2002), *Cognitive Science: A Philosophical Introduction*, Sage.
- Latour, B. (1992), “One more turn after the social turn...”, in: E. McMullin (Ed.), *The social dimensions of science*, Indiana: Univ. of Notre Dame Press, 272 - 294쪽.
- Lueck, H. E., R. Miller & W. Rehtien (Hg) (1984), *Geschichte der Psychologie*, BeltzPVU.
- Maiers, Wolfgang (1988), “Sechzig Jahre Krise der Psychologie”, in: *Forum Kritische Psychologie* 21, 23-82쪽.
- Mannheim, K. (1982[1929]), “Die Bedeutung der Konkurrenz im Gebiete des Geistigen”, in: V. Meja und N. Stehr (Hrsg.), *Der Streit um die Wissenssoziologie*, 2 Bde., Frankfurt/M.: Suhrkamp, 325-370쪽.

- Searle, J. (1998), *Mind, Language and Society*, Basic Books.
- Smedslund, J. (1978), “Bandura's theory of self-efficacy: a set of common-sense theorems”, in: *Scandinavian Journal of Psychology*, 20: 1-12쪽.
- Smedslund, J. (1984), “What is necessarily true in psychology?”, in: J. R. Royce & L. P. Mos (Eds.), *Annals of Theoretical Psychology*, 2: 241-272쪽.
- Smedslund, J. (1995), “Psychologic: Common Sense and the Pseudoempirical”, in: J. A. Smith, R. Harré & L. v. Langenhove (Eds.), *Rethinking Psychology*, Sage, 196-206쪽.
- Wittgenstein, L. (1953),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asil Blackwell.
- Wygostki, Lew (1985[1927]), “Die Krise der Psychologie in ihrer historischen Bedeutung”, in: Wygotski, L., *Ausgewählte Schriften*. Hrsg. von Joachim Lompscher, Köln, Bd. 2, 57-278쪽.
- Wundt, W. (1900-1920), *Völkerpsychologie*, 10권.

Human Mind, Sciences and Culture
- On Possibilities and Limits of Psychological Sciences

Hoyoung Choe

There are two important points of view from which one looks at the history of psychology, as it exists for about 130 years as an independent scientific discipline: In the so-called mainstream psychology, psychology is considered to be a discipline that is continuously developing toward a scientific understanding of human minds and behaviors. But for some non-mainstream groups of psychologists the history of psychology was and is a process of incessant conflicts between objects and methods of psychological research. From this point of view I have discussed two methodological problems which seem to be prevalent in contemporary psychological research activities. First, so-called 'psychological common sense', namely 'the set of all psychological statements which are true by virtue of the meanings of their constituent words' cannot be, by definition, empirically researched. If the fact is ignored, then a sort of pseudo-empirical research outcomes are highly probable. Second, many psychologists have a great difficulty in adequately treating normative phenomena in human self-understandings and everyday activities. In the face of these (and other) problems it seems to be advisable to pursue methodological renewal of psychological sciences on the principle of the primacy of culture over sciences.

Key Words: history of psychology, psychological sciences, psychological common sense, normative phenomena, culture

최호영 e-mail: hy_choe@hanmail.net